

10대 때 '미래의 나' 만들어져

누구나 그렇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10대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내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절 금요 선생님들 따라 다니면서 어린마음에 막연하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선(禪)공부를 접하게 됐고, 의료봉사활동에 동참해 하는 일이라고는 봉사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재봉하는 일 밖에 없었다. 나도 모르게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일은 가슴 뿌듯하다는 것을 훈습하던 과정이었던 것 같다. 결국 40대를 바라보는 있는 지금 나는 선(禪)사상 덕분에 밥 먹고 살고 있고,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두 가지가 모두 나의 10대 때 성립됐던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기 중 어느 한 시절이 안 소중한지하는 이처럼 10대 때 누구를 만나,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떠한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정체성이 성립될 때 가장 중요한 '윤리관'과 '직업관' '성정체성' 등이 함께 형성된다. 내적으로 자신의 기본 윤리와 사람들의 소통 상생 문제, 사회와 여러 관계들과의 융화 문제 등이 윤리관으로 형성된다. 자신의 미래 계획과 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이 직업관과 관계가 있고, 부모 등을 통해 비추어진 이성의 모습에서 자신의 역할과 성정체성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성립해 가는 10대는 어느 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때이며, 한 사람의 미래와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요즘 10대들의 특징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관계와의 융화에 있어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다. 미성숙함과 반대로 '성(性)'과 자신의 '득(得)'에 대한 조속함이 함께 양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지금 사회는 이들이 극도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공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의 아이 뒤에는 항상 문제의 부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늘 좋은 얘기와 밝고 긍정적인 것들만 보고 자라다 부족한 시기에 늘 TV만 켜면 끔찍하고 괴로운 소식들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쇼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관계와의 소통이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아닌 남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주입식 교육과 경쟁이 조장돼 있다. 따뜻한 촉감과 유대를 느끼기도 전에 빠르고 편리한 클릭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또 다른 방법



10대 때 누구를 만나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윤리관, 직업관, 성정체성 등이 함께 형성된다.

미래 계획이나 관계와의 융화 점점 더 어려워져 '너' 아닌 '나 중심' 대화법으로 10대와 소통해야

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인간의 희비애락 또한 인터넷 세상에서 느끼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See me, Click me"로 대표 되어지는 '퍼블리즌(Publizen)' 세대가 되는 것이다. 퍼블리즌은 공개(publicity)와 시민(citizen)을 합성한 신조어로 자신의 사생활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여기저기 퍼뜨리는 신종 인간 세태를 말하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기, 컴퓨터, 휴대전화, 웹캠을 벗어 놓으며, 일상사를 태연하게 블로그 등에 올리면서 자신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 여기에는 부끄러움이나 파렴치함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무조건 유명해지고 싶은 심리, 특이하게 보이거나 튀고 싶은 영웅심리가

하는 것이다. 덧붙여 칭찬과 인정을 첨부한다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나의 말 한마디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와 사회 국가 차원의 앞날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석soon 소장 이경제한방 & 카루나마인드힐링연구소

10대 인터뷰

"윗세대만의 문화 말할 때 세대차"

부모세대와 세대차이 가장 큰 이범학군

일렉기타에 관심이 많은 이범학(고1·사진군은 20·30대 누나들의 귀여움을 받고 자란 집안의 막내다. 이군은 "윗사람을 대할 때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군은 각종 매체나 TV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신이 공유하지 못했던 윗세대들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누나들끼리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전 아이돌 그룹 멤버를 얘기할 때 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없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HOT, 잭스키스 등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을 모르는 세대들이 있다는 것에 세월의 흐름을 느끼듯, 이군은 자신이 모르는 유명인사를 이야기 할 때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했다.

"우리 때는 말야...". 어느 세대이건 들었을 말이다. 이군은 마찬가지였다.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 때는 교실에 에어컨도 없이 수업했어' 라고요. 지금은 옛날보다 살기 편해졌다고 하죠. 우리 세대더러 편하게 산다고 많이 해요. 시대를 잘 타고 났다고요. 체벌문제도 그렇고요. 학교 체벌이 금지됐잖아요."

이군은 20대에게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군은 "20대에게는 친구와는

또 다른 편안함이 있는 것 같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오래보다 몇 번 더 살았으니 조언도 잘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세대(40-50대)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낀다는 이군은 "부모님들은 이것저것 제재를 많이 하지 않나. 밤늦게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도 문제없는데 부모님이 못하게 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이군은 "하지만 윗세대들과 친해 지려고 노력도 많이 한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일부러 말을 더 걸기도 한다"며 자신만의 세대차이 극복 노하우를 들려줬다.

또 이군은 "좀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생각을 들어보고 서로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는기자

"대화 많아야 세대 간 에너지 활성화"

50~60대가 가장 폐쇄적이라 느끼는 김혜빈양

고등학교 2학년인 김혜빈(사진)양은 학업,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외모에도 관심 많은 평범한 여고생이다.

김양은 "남학생들과 단순한 친구관계로 지내도 어른들은 이성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주의를 줄 때가 있다. 남자가 유별해야한다는 식의 말을 들을 때 세대 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대들은 자신의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여고생들은 특히 그렇다. 김양은 "우리 포레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따로 있다. 우리들은 보기 좋은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입는 건데 친구들과 놀러 나갈 때 부모님이 옷차림에 대해 '치마가 좀 짧다' '블랙바지는 몸에 좋지 않다'는 식으로 지적하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며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가끔은 당황스럽거나 불쾌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양은 50~60대들이 가장 폐쇄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50-60대 분들

은 권위적이기도 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기보다 훈계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양은 이러한 어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과 10대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김양은 부모님이 40대여성인지 40대라는 친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려면 말을 달고 사는 것 보다 서로 속시원히 털고 이야기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나는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 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이 책은...

- 천연 아미노산의 작용, 만병의 근원인 과산화지질의 퇴치법, 현대병 예방과 회복을 주도하는 미네랄 삼총사, 섹스 미네랄 아연과 차려 미네랄 유기동, 여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백옥 같은 살결 만드는 비법, 효소의 작용,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 당분초, 중약대사전, 본초습유, 식물 명실도고, 영남체약록, 광서중약지, 본초추진, 호남 약물지 등에 기록되어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치료하는 귀한 약초로 쓰이고 있는 삼백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체내 환경을 정비하고 항염·항균·분해 작용을 하며 세포를 부활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질병 치료 기전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문의 070.7804.5358